

부경대 대마도연구센터 이근우 원장

“한·일 양국 협력과 상생의 논리 개발”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49.5km에 있는 산으로 이뤄진 섬. 자기 나라인 일본보다는 외국인 한국에 더 인접한 땅. 바로 대마도다. 이렇게 가깝고 먼 대마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최근 개소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 부경대 대마도연구센터. 이근우(49·사학과 교수) 원장은 “부산과 제일 가까운 대마도 연구를 통해 한·일 양국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협력과 상생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연구센터 발족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대마도연구회를 창립하며 대마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원장은 “이 관심을 학술적 배경을 가진 연구로 이끌어가기 위해 연구센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마도 연구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우리 센터는 역사와 문화, 지질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연구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포괄적 연구를 위해 대마도연구 센터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부산대 손문 교수(지질), 동아대 박광준 교수(고고) 등 부산지역 87개 대학에서 43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일

역사·문화·지질 등 종합적 접근
높아진 관심 학술적으로 뒷받침



‘여총서’, 부산·대마도 고지도집도 이 총서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현재 국시편찬위원회에 일부가 보관돼 있는 ‘대마도종 가문서’를 활용한 연구에 기대를 진다. “대마도 도주인 중에서 일가의 집안 문서인 대마도종 가문서를 연구하면 한·일 관계 변천사와 독도에 관한 많은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마도는 한·일 관계의 척도와 같은 존재라는 게 이 원장의 평가다. 역사적으로 대마도 사람들은 영국 관계가 우호적일 때에는 왜관의 형태로 부산에 정주했고, 관계가 나쁠 때는 왜구가 데나타났다는 것. 이 원장은 “대마도는 일본에서 한반도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다. 도주가 조선에서 관직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마도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한·일 교역의 중간나라 역할을 하면서 살았었다. 이 원장은 “그것이 대마도의 양속성(兩屬性)”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도 속하고 일본에도 속한다는 뜻이다. “선택은 대마도 사람들의 것이지 만 한·일 양쪽에 모두 속하면서 양국 관계 변호를 미리 감지하고 충격을 조절하는 원충 역할을 하는 양속성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지 모른다.”

오늘아침 기자 chris@busan.com

연구를 많이 안 하는 곳이다. 한국의 대마도 전공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만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 원장은 우선 기존의 대마도 연구자료를 모아 이를 바탕으로 ‘대마도 연구총서’를 만들 계획이 고 말했다. 일본과 관계 있는 부산의 유적지인 와관, 왜성, 석민시대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산문

본사, 한국사, 국제법,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마도를 연구한다.

이 원장은 대마도를 경유하는 한일 해저터널과 한·일 해저 공동개발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에는 연구센터 소속 교수들이 대마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대마도는 일본에서도

釜山日報

2009年1月10日

釜慶大 対馬研究センター イ・グンウ院長

「日韓両国の協力と共生の論理開発」

歴史・文化・地質等総合的に接近
高まる関心、学術的に後押し

釜山から直線距離で49.5kmにある島でできた島。自国の日本より外国である韓国により隣接した土地。それが対馬だ。そんな近くで遠い対馬を専門的に扱う研究所が門を開いた。

最近開所式を行い、活動を始めた釜山の釜慶大対馬研究センター。イ・グンウ（49・歴史学教授）院長は「釜山と最も近い対馬の研究を通して、日韓両国の過去を振り返り、今後の協力と共生の論理を開発しようというもの」と研究センターの発足の意義を明らかにした。

昨年、釜山地域の政治家が竹島問題と関連し対馬研究会を創立して、対馬に対する関心が高まった。イ院長は「この関心を学術的背景をもった研究に導くために研究センターが作られた」と説明した。氏は「これまで対馬の研究は経済的な側面に集中した傾向があった。このセンターは歴史と文化、地質等、多様な内容を含んだ総合的な研究を繰り広げる予定」と紹介した。

包括的な研究のために対馬研究センターには、イ院長をはじめ釜山大ソン・ムン教授（地質）、東亜大パク・クアンチュン教授（考古）等、釜山地域8つの大学から43人の教授が参与した。日本史、韓国史、国際法、政治、芸術等、多様な分野にわたり対馬を研究する。

イ院長は対馬を経由する日韓海底トンネルと日韓海底共同開発に対する論議も可能だと付け加えた。来月には研究センターの所属教授たちが対馬を訪問する予定だ。

イ院長は「対馬は日本でも研究をあまりしない場所だ。韓国の対馬専攻者もごく少数にすぎない」と明らかにした。それほど資料が足りないということだ。イ院長は、まず既存の対馬研究資料を集め、それらをもとに「対馬研究叢書」を作る計画だと話した。日本と関係のある釜山の遺跡地である倭館、倭城、植民地時代の建築物に対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釜山文化叢書」、釜山・対馬古地図集」もこの叢書と共に刊行する予定だ。

イ院長は現在、国史編纂委員会に一部が保管されている「対馬宗家文書」を活用した研究に期待をかける。「対馬の島住民である宗氏一家の家内文書である対馬宗家文書を研究すれば、日韓関係の変遷史と竹島に関する多くの内容を知るようになるだろ

う」というのが氏の考えだ。

対馬は日韓関係の尺度のような存在だというのがイ院長の評価だ。歴史的に対馬の人々は、両国の関係が友好的なときは倭館の形態で定住し、関係が悪い時には倭寇となって現れた。イ院長は「対馬は日本のなかで朝鮮半島を最もよく知る地域だ。島主が朝鮮から官職を受けたりもした」と説明した。

対馬はまた歴史的にみると、日韓交易の中間橋の役割をしてきた。イ院長は「それが対馬の両属性」だと話した。韓国にも属し、日本にも属するという意味だ。「選択は対馬の人々のものだが、日韓両側に属しながら両国の関係の変化を先に感知し、衝撃を調節する緩衝の役割をする両属性がもっとも望ましい姿なのかもしれない」